

[국제]

“北 비핵화 맞춰 테러지원국 삭제”

송민순 외교-라이스 美 국무 합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북한의 불능화 이행과정과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신고상황에 맞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7박8일간의 미국 및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7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능화 과정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10·3합의에서 미국이 취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연내 불능화

완료 등 비핵화 조치와 ‘병렬적으로’ 하기로 한 원칙을 재확인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또 “한·미 양국은 이런 과정과 병행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관한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역시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회의 의장국으로서 (10·3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도록 관련국들과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방미 기간에 이뤄진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외교위원회 간사·공화)과의 면담에 언급, 루가 의원이 적극적인 대북 협의의 자세를 보였으며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루가 의원의 키스 보좌관이 면담에 참석해 방북결과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루가 의원은 과거 구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핵시설 폐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1992년의 ‘년-루가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이 법안은 관심국들이 공동으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핵보유국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우크라이나 방식’의 원조로 평가받고 있다.

송 장관은 “년-루가 프로그램은 구 소련의 핵무기 폐기 과정에 적용된 것으로 북한 핵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미 행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미 의회 차원에서 다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대선 1년 앞으로

⑤ 韓美관계 변화

한미동맹 가장 큰 변수는 ‘북한’

내년 11월 4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향후 한미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0여년간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 집중됐던 한미동맹관계가 새로운 안보·경제환경에 걸맞게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 핵심요소는 ‘북한 변수’=한미관계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북한’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미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 등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현재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 인식차가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가 임기내 해결을 위해 양국협을 쓰고 있지만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 문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등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가 북한, 이란 등 적성국들과 직접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북한과의 대화정책을 천명했다.

공화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어 집권할 경우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는다.

전작권 전환·방위비 분담 등 변화 없을 것

△한미 FTA, 공화후보 찬성, 민주당후 반대=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클린턴 의원은 지난 6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노총 주최 행사에서 한미 FTA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의원도 자동차 문제를 이유로 한미 FTA 반대를 표명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줄리아니 전 시장, 톰니 전 주지사, 매케인 의원, 톰스 전 의원 등 후보들은 자유무역을 강조하며 모두 FTA 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한미 양국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작권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은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당장은 기존 합의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합의가 한미 양국의 공동된 인식과 이해하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핵 사고 “직접대화” VS “6자회담” 이견

정당을 불문하고 대선후보들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어느 당이 혹은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전에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회의적 평가를 내리면서 대북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6자회담’ 등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틀을 지지하고 있어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최근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

‘최후의 만찬’에는 ‘진혼곡’이 흐른다

伊 음악가, 숨겨진 음악 찾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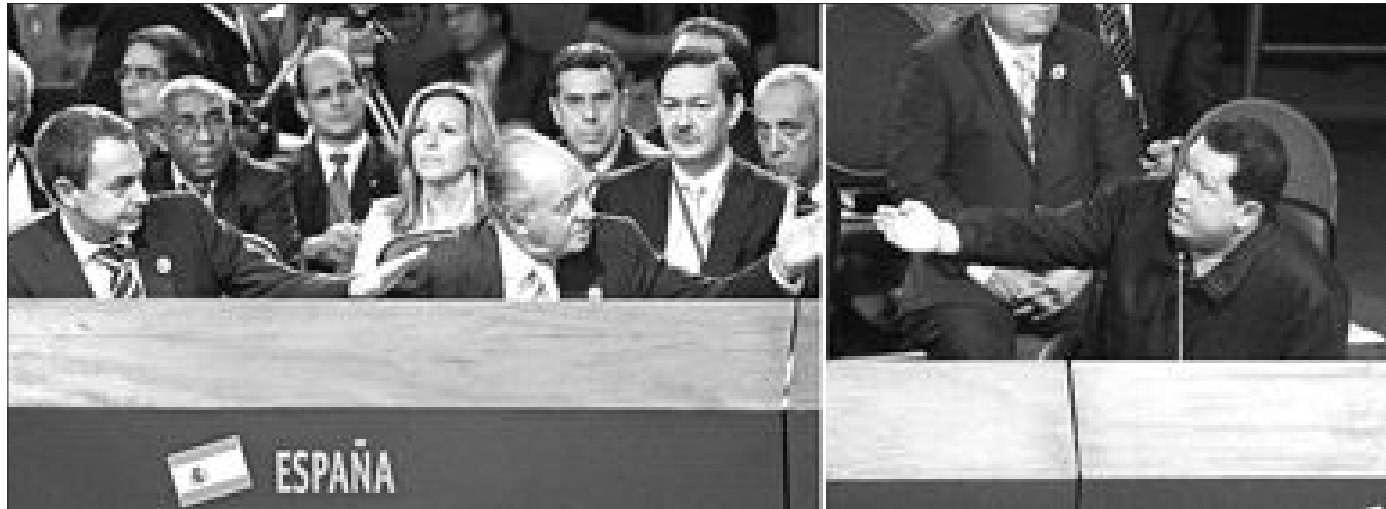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숨겨진 레퀴엠(진혼곡)을 찾았다.” 이탈리아의 음악가이자 컴퓨터 전문가인 조반니 M. 팔라(45)가 2003년부터 4

년 동안의 연구 작업 끝에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음악을 찾아냈다고 AP 통신이 10일 전했다.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벽화인 이 작품은 다빈치가 1494~1498년 기간에 그린 것으로 예수

가 채포돼 처형되기 전날 12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유다의 배반이라는 극히 한정된 순간을 그렸다.

팔라는 2003년 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다빈치가 그 작품 속에 ‘악곡’을 숨겨놓았을 것이라는 연구진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 그러한 수수께끼를 푸는 데 본격적으로 달라 붙었다. /제네바=연합뉴스



지난 10일(현지시간) 열린 제17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 폐회식에서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왼쪽 사진 앞줄 오른쪽)이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왼쪽)가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오른쪽)이 끼어들러 하자 “입닥쳐!”라고 호통을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인 국왕 “차베스, 입닥쳐!”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서 험악한 분위기 연출

후안 카를로스 스페인 국왕이 10일 제17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담 폐회식중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입닥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카를로스 국왕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차베스 대통령이 끼어들러 하자 발끈하여 차베스 대통령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왜 입을 닥치지 않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날 사건은 차베스 대통령이 할당된 시간에 연설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전

쟁을 지지한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전 스페인 총리를 파시스트라고 지칭한 후 “파시스트는 인간도 아니다. 차라리 뱀이 더 인간에 가깝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사파테로 총리가 연설중에 이에 반박하는 대목에서 발생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스페인 사업가 디아스 페란까지 비난한 바 있어 스페인 정부로서는 이를 불쾌하게 생각해 오고 있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네덜란드 의회 ‘위안부결의안’ 채택

일에 공식 사과·보상 요구...유럽의회도 추진

네덜란드 하원이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네덜란드 헤이그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네덜란드 하원은 지난 8일 저녁 자유민주당(VVD)이 제출한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의 민경호 참사관이 10일 말했다. 유럽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네덜란드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7월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유럽의회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적어도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군 위안부는 아시아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네덜란드 여성들도 포함돼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군이 위안부들에게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과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에 아시아와 서방의 여성들을 전쟁 중에 성노예로 학대한 사실을 포함해 2차 세계대전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는 등 역사 교과서를 수정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브뤼셀=연합뉴스

대만도 핵 개발 의혹

이주주간 최신희 “인도가 극비리 지원”

대만이 핵보유국 인도의 지원으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홍콩 시사주간지 이주주간(亞洲週刊) 최신희가 11일 보도했다.

대만의 핵무기 개발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사태 이후 제기된 동북아의 핵 도미노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동북아 안보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주주간은 지난 2004년부터 수차례 비밀리에 대만을 방문해온 인도 핵개발의 지휘자 스리 페르난데스 전 인도 국방장관을 매개로 대만이 인도로부터 핵무기 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98년 5월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할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페르난데스 전 장관은 인도의 각종 핵무기 계획과 기술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의원이기도 한 페르난데스 전 장관은 인도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며 중국을 적대시하는 강경과 정치인으로 꼽힌다. 핵실험 성공 후 페르난데스 전 장관은 TV 인터뷰를 통해 “중국어야말로 인도에게 가장 큰 잠재적 위협 대상”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민당 소속 추치(蘇軾) 의원은 지난달 19일 입법원 정부 질의에서 “현재 대만 행정원과 국방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흔적이 포착된다”고 주장했다. /홍콩=연합뉴스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원천외산 프리미엄 열풍제기!
원천외산 프리미엄 열풍제기!
파라 조작과 원거리 입제 난립까지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냄새, 소음 자립 장치 채택

남양방 열풍제기 500만원 부터의 원천외산입니다.
무등산업 (02) 2771-7000, (011) 891-7701

당신의 'S' 라인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S'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몬스침대

쉬금대리점 (082) 221-1760
부곡대리점 (082) 610-7851
현대대리점 (082) 908-5800
일고대리점 (082) 637-1576